

# 투르 드 코리아 작전차량을 아시나요?

선수와 무전연락 작전지시·정보제공 스페어 사이클·부품 신고 동반레이스 도착지점 대형차량은 물품창고 역할



'투르 드 코리아 2016'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클팀의 '팀 카'. 감독이 탑승하는 승용차(앞)는 선수들과 레이스를 함께 펼치고, 대형버스는 도착지점에서 선수들을 맞이하는 중합창고다.

국민체육진흥공공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투르 드 코리아 2016' 2일째 레이스가 6일 경북 구미를 출발해 전북 군산으로 도착하는 235.2km 구간에서 펼쳐졌다. 레이스 중간 중간 차량들이 선수들의 곁을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각 팀의 사인보드가 부착된 이 차량에는 스페어 사이클 2대를 포함한 각종 장비가 갖춰져 있다. 그뿐 아니라 코칭스태프가 이 차량에 탑승해 순간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며 레이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애썼다. 각 팀은 이외에도 대형차량을 한 대 더 준비했다. 이 차량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 ● 선수들과 레이스를 함께 하는 승용차

선수들은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 개인

별로 무전기를 준비한다. 이를 통해 지원 차량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레이스 도중 미리 짜둔 작전을 바꿔야 할 상황이 오면 차량에 탑승한 감독은 선수에게 무전기를 통해 이를 알려준다. 레이스 상황, 도로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선수와 감독이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함께 달리는 것이다. 이 차량에는 다양한 물품이 실려 있다. 스페어

사이클 2대뿐 아니라 사이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로 위에서 곧바로 조치할 수 있는 각종 부품 등 다양한 장비들도 마련돼 있다. 또 선수들이 레이스 도중에도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식과 물을 갖춰놓고 있다. 선수들이 무언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코칭스태프가 곧바로 전달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를 해놓고 있다.

### ● 도착지점에서 선수들을 맞이하는 대형 차량

출전한 각 팀에는 승용차 외에도 대형차량이 한 대 더 있다. 이 차량은 끝인 지점에서 선수들을 맞는다. 각 팀 스태프는 도착지점에 대형차량을 주차해 놓고, 선수들이 끝인한 직후 곧바로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한 외국팀은 이날 선수들이 끝인할 시간이 다가오자 차량 옆에 간이의자와 갈아입을 옷 등 다양한 물품을 개인별로 챙겨놓기도 했다. 선수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음식도 마련해놓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클팀 관계자는 "이번 대회 전체를 치르는 데 있어 필요한 물품이 이 대형차량에 다 있다고 보면 된다. 매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레이스 후 마사지에 필요한 장비도 실려 있다. 종합창고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레이스를 마친 선수들을 숙소로 데려가는 역할도 이 대형차량이 맡는다. 외국팀들은 대형버스를 렌트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군산 | 최홍석 기자 gtyong@donga.com

## 문동신 군산시장 "스포츠 명품 관광도시 자리매김"

투르 드 코리아 좋은 마케팅 기회 개통 앞둔 고군산군도 도로 홍보

"투르 드 코리아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우리 군산시의 정책이 잘 맞습니다. 또 개통을 눈앞에 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과 근대역사문화의 도시 전북 군산시는 투르 드 코리아(TDK) 구간 중 가장 길고 난코스인 2구간의 끝인 3구간의 출발도시다. 문동신

시장(78·사진)은 "TDK를 통해 7월 개통될 예정인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홍보할 수 있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시도~무녀도~선유도를 연결하는 길이 7월 부분 개통되고, 선유도에서 장자도까지 나머지 구간은 2017년 말 개통된다. 이 도로 개통으로 군산에서 배를 타지 않고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해 절경인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갈 수 있게 된다.

문 시장은 "군산은 자전거 인프라도 잘 갖췄다"고 자부했다. 실제로

금강하구에서 충남 대청담까지 강변을 달리는 146km의 금강자전거길이 개설돼 있고, 시내 곳곳에도 자전거 거리가 잘 닦여 있다.

문 시장은 "군산은 많은 국내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스포츠 명품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산시는 연간 30여 개의 대규모 국내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금석배 전국축구대회와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열었고, 지난달



29일에는 나포면 망해산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했다. 하반기에도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와 전국남녀중고농구 왕중왕전, 전국철인3종경기 등이 열릴 예정이다.

군산 | 김평오 동아일보 기자 kokim@donga.com

## KLPGA 예선 출신 첫 우승 '박성원의 기적'

(롯데캐타타여자오픈)

캘리포니아 토너먼트 거쳐 투어 참가 유망주 경쟁과 성장의 기회 계기로

'무명' 박성원(23)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캐타타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신데렐라가 됐다.

박성원은 5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내로라하는 스타플레이어들과 경쟁한 끝에 당당히 정상에 올라 무명 돌풍을 완성했다. 사흘 동안 16언더파 200타를 친 박성원은 2위 하민승(20)을 무려 5타 차로 제쳤다.

박성원은 웬만한 골프팬조차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선수다. 2012년 프로가 돼 주로 2부(드림)와 3부(점프) 투어에서 활약해온 그는 지난해 처음으로 정규투어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25개 대회에 출전한 거둔 성적은 고작 삼금랭킹 91위(3134만원)였다. 최고성적은 상위랭커들이 대거 빠진 금호타이어여자오픈 10위였다. 시드 순위전으로 밀려났지만 54위에 그쳐 올해는 대기시드를 받고 활동 중이다. 우승으로 그는 지난 4년 동안의 고된 생활을 모두 씻어냈다. 우승 전 97위(669만원)였던 삼금랭킹은 우승으로 17위(1억2690만원)로 뛰었고, 2년 동안 KLPGA 정규투어 출전권을 손에 넣으면서 안정된 투어 생활도 보장받았다. KLPGA 투어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무대에 오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건 박성원이 처음이다. 우승은 개인적인 영광이지만, 박성원의 우승을 통해 KLPGA 투어는 나아가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대기 시드자인 박성원은 이번 대회 출전권이 없었다. 그가 이번 대회에 나올 수 있었던



지난 5일 캘리포니아 토너먼트를 통해 KLPGA 투어 롯데캐타타 여자오픈 본선 무대를 밟은 박성원이 5일 끝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데렐라가 됐다. 박성원은 우승으로 삼금 1억 2000만원과 2년 투어 시드를 받았다. 우승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박성원. 사진제공 | KLPGA

건 지난 5월 열린 캘리포니아 토너먼트(이하 QT)라는 예선전 덕분이다. 5월 10일 충남 부여의 롯데스카이힐 부여골프장에서 열린 QT에는 모두 96명의 프로와 아마추어 골퍼가 출전했다. 이중 19명이 본선무대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QT는 유망주나 시드 하위권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문 중 하나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투어에선 QT 또는 월예선전(먼데이)을 통해 출전권을 주는 대회가 많다. 지난 2월 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강성훈(29)은 월예선을 통해 노던트러스트오픈 출전권을 따냈고, 이 대회에서 공동 8위에 올라 시드 순위를 대폭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US여자오

픈 QT에는 올해 18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몰리기도 했다.

KLPGA 투어에선 아직까지 QT나 월예선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성원의 우승을 통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확실해졌다. QT나 월예선이 단순히 유망주들에게 대회 출전의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유망주 발굴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성원 역시 QT를 통해 작은 기회를 얻었고 이를 기적으로 만들어냈다. 제2의 박성원을 꿈꾸는 무명들에게 작은 기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 평창올림픽 조직위-서울시 업무협약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서울시가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보유 매체·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대회 홍보 ▲문화행사·성화봉송 ▲대회 운영을 위한 인력·물자 ▲대회 관련 정보·자료 공유 등을 돕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조직위와 업무협약을 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 손연재, 리듬체조 7차 월드컵 볼 3위

손연재(22·연세대)가 5일(한국시간)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ITG) 리듬체조 7차 월드컵 3일째 종목별 결선 볼에서 18.700점으로 3위에 올랐다. 알렉산드라 솔다토바(러시아)가 19.100점으로 금메달, 안나 리자르티노바(우크라이나)가 19.000점으로 은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이로써 손연재는 올 시즌 출전한 월드컵 5개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따냈다.

### 맥거트,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

37세의 무명 골퍼 윌리엄 맥거트(미국)가 우승상금 18억 원(153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다. 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850만 달러)에서 깜짝 우승에 성공했다. 4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친 맥거트는 존 커런(미국)과 동타를 이룬 연장전에 돌입한 뒤 2차 연장에서 파를 잡아 우승했다. 2011년 PGA 투어에 데뷔해 165번째 대회 만에 이런 감격의 첫 우승이다. 한국선수 중에선 안병훈(25)이 함께 11언더파 277타를 적어내 공동 11위에 올랐고, 최경주는 공동 52위(4언더파 284타), 김시우는 공동 74위(5오버파 293타)로 대회를 마쳤다.

편집 | 정용근 기자 sadzoo@donga.com

## '외국인선수 차별 리그'가 된 KBL

### ■ 취재파일

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트로이 길렌워터(28·전 LG·사진)의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참가 자격을 박탈했다. 길렌워터는 2015~2016시즌 동안 심판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유독 많은 트러블을 일으켰다. 심판에게 '돈을 세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고, 중계 카메라에 수건을 뒤집어씌우는 등 무려 6차례나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재정위는 'KBL 선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길렌워터의 트라이아웃 참가를 막았다. 재정위의 결정대로라면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수차례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술하게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던 데니스 로드맨, 찰스 바클리(이상 은퇴)는 전성기 기량으로 KBL 트라이아웃 신청서를 냈더라도 참가 자격이 제한됐을 것이다. KBL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는 모범생이 아니면 선수 자격이 없으니 말이다.



길렌워터의 선수 자격을 제한한 결정에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다.

그동안 국내 선수에 한해서 스포츠망이 처벌이 많았다. 계약을 위반하거나 법을 어겨도 구단의 눈치만 보다가 징계수위를 낮췄을 뿐, 선수 자격을 제한한 적은 없었다. 길렌워터는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 않다. 이해가 안 된다"며 억울해 했다.

또 다른 KBL 경력 외국인 선수는 길렌워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트로이(길렌워터)가 한국 선수를 때려서 그런 줄 알았다. 유럽에서도 KBL은 좋은 리그라고 꽤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해외에 퍼지려 부끄러운 일 아닌가? 외국인 선수를 차별하는 리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재정위의 이번 결정은 외국인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는커녕 '외국인 선수를 차별하는 리그'라는 꼬리표를 붙여주는 시선만 떠안은 꼴이 됐다. 올해 남자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은 7월 18일(한국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부상, 방출 등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난 골든스테이트의 백업 가드 손 리빙스턴(오른쪽)이 2015~2016시즌 NBA 챔피언 결정전을 더욱 흥성하게 만들고 있다. 리빙스턴이 6일(한국시간) 오라클 아레나에서 벌어진 클리블랜드와의 챔피언 결정 2차전 도중 카일리 어빙을 밀쳐내 버리고 있다. 오른쪽이 캘리포니아주 | AP/뉴스

## '백업가드' 리빙스턴의 인간승리

골든스테이트 챔피언전 2연승 주역 부상·4번 방출·하부리그 딛고 재기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전 세계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각광받는 팀이다. 2015~2016시즌 정규리그에서 73승(9패)을 거두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골든스테이트는 6일(한국시간) 홈구장 오라클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7전4승제) 2차전에서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110-77로 대파했다. 2연승을 거둔 골든스테이트는 2시즌 연속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잘 나가는' 팀답게 이야기거리도 많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골든스테이트의 백업가드 손 리빙스턴(31)의 스토리에 주목했다. 리빙스턴은 3일 벌어진 1차전에서 20점·4리바운드·3어시스트의 맹활약으로 주포 스티브 커리(11점)의 부진을 상쇄했다. 201cm의 장신 포인트가드 리빙스턴은 2004년 데뷔 때만 해도 '제2의 페니 하더웨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07년 2월 27일 살럿 밥캐츠(현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레이업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 왼

쪽 다리가 부러지고, 양쪽 무릎 십자인대가 연쇄 파열되는 중상이었다. 수술 후 농구공을 다시 잡기까지 1년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리빙스턴은 재기의 끈을 놓지 않았다. 2014~2015시즌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해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보기까지 4번의 방출을 경험했고, 하부리그인 D리그로 떨어지는 설움도 맛봤다. 이런 리빙스턴의 이야기는 큰 부상을 당한 선수와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4월 보트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워리어스 팬은 리빙스턴의 트위터에 '당신의 재기가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리빙스턴은 "약해지지 말라. 자신을 믿어라. 어려운 이야기를 나에게 해줘서 고맙다. 당신이 다시 최고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골든스테이트 스티브 커 감독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리빙스턴의 출전시간을 경기당 25분 내외로 제한하고 있다. 리빙스턴 역시 지속적으로 재활을 하고 있다. ESP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인생의 좌절을 맞본 순간에 내 이야기가 하더웨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07년 2월 27일 살럿 밥캐츠(현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레이업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 왼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